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엡5:18

성령강림절은 부활절 후 50 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을 부활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후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성령강림절은 기독교회의 창립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자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 년동안 먹고 마시며 기적을 목격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후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없이 예수를 믿거나, 회개할 수 없으며 성령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경험은 이것과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도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원래 미국 선교사로 떠났으나 선교에 실패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런던의 올드 스키프트라는 곳의 기도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날 이후에 온 영국에 돌아 다니면서 전도하여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후년에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불길 때문에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1.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 15:26)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담대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2. 하늘나라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다른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입술의 말부터 바뀝니다. 세상 말에서 천국말로 바뀝니다. 천국 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영광을 받았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선포를 이야기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잠언 18 장 21 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혀와 말을 사로잡아야 온몸을 사로잡고 그 운명의 키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이 우리 혀를 사로잡아서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뇌 전문가가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뇌는 몸의 모든 신경을 통제하므로 결국 말이 우리의 온몸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부로 일할 뿐, 사회적으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손잡고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케 하는 영이요 거룩한 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주시기 시작한다면 비록 무식하고 천대받는 사람이라도 성령이 와 계시므로 다른 사람이 되며,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옵니다. 예전에 불가능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된다고 바뀌게 됩니다. 평범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3.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엡 5:18)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마 13 장에 이후에 보면 귀신이 나가서 광야의 물 없는 곳을 두루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면 항상 옛집으로 돌아오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 장에 보면 귀신은 돌아오기 전에 관망을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더라고 했습니다. 방은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주인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였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때와 성령침례를 받은 때의 상황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이후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현상들은 어떠한지, 본인의 경우를 들어가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성령은 죄를 깨닫게는 해 주시지만,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지는 않으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결단)하고 있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5. 목장별 노방전도 및 VIP전도에서 가장 우선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행4:31참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장이 전도에 재결단과 헌신할 수 있도록 합심기도 하십시오.

그러자 사탄이 그곳에 다시 들어와 주인으로 차지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지배하지 않는 곳은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상태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4. 죄를 깨닫게 됩니다

"(행 2:37)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독려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충만을 받은 후 예루살렘에서 소리 높여 설교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찢려 회개하는 역사나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의 대부흥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고 하셨지만 당장 세상에 내어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떠한 것보다 성령님과 만남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죄악들을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